





전 세계에 한 화가를 위하여 세워진 박물관은 하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박물관이 화란의 암스텔담에 있습니다. 그가 생존 시 그린 그림이 800여점 되는데 그 중 한 작품만 그가 살아 있을 때 팔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작품이 전 세계 중요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가장 많이는 암스텔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화가 100여명이 모여서 65,000 장의 그림을 그려서 엮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카데미 상까지 받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당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화가가 되게 하였을까요?’ 대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그는 고통의 눈으로 세상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물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인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안락을 추구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루를 산 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살 때는 좋았지만 영구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순절은 안락의 안경을 벗고 고난의 안경으로 새롭게 우리들의 눈을 교정시키는 기간입니다. 40일을 통해 잘 교정된다면 남은 한 해도 참 화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될 줄 압니다. 하루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작품이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장될 것입니다.

올해도 묵상집을 읽으며 우리들의 눈을 아름답게 교정시키십시오. 수고해 주신 홍보 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착하고, 성실했으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부모님께 잘 했으며, 형제 간에 화목하기를 힘썼으며,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나의 죄가 무엇이냐고 물을 여기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남을 판단하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도리를 하고 예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우실까 ..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목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회개 해주시기로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원하셔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함없는 사랑의 빛을 갱아드릴 길이 없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더럽기 한량없는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작으로 40일을 육신의 정욕을 이겨보는 저희들 만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외로운 십자가 길에 우리도 조용히 서 보는 40일이 되어 보길 원하오니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저희의 붉은 죄를 태워주시고, 제와 같이 사라질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웁니다..
아멘



기다림을 마주하는 자세

김학주 교우

3/7(목)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움이 더뎠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
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1)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 용서, 절제, 그리고 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화해와 사랑으로 채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며 절제의 한 모습인 기다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사순절 묵상 글을 위해 책상에 앉아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면 성령님의 번뜩이심을 기다립니다. 매우 지루하고, 답답하며, 도저히 이번 사순절에는 나눌 것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림이 불편한 이유들을 추려보았습니다: 나는 기다림이 왜 불편할까 - 첫째, 기다림은 나에게 ‘세상의 중심은 너야’ 라고 이야기한다; 둘째, 기다림은 나에게 ‘지금 무조건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한다; 셋째, 기다림은 나에게 ‘시간낭비를 하지마’ 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의 중심인 너는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지 다른 것들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번번히 ‘맞아, 난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결국 저를 평온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도 생각해봅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오랜 시간동안 하늘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아버지의 인류구원의 뜻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지금의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 어차피 어떻게 될 것을 다 아는데 빨리 해치우지 참 답답하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지요. 하늘 아버지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30년가량을 아들과 목수로 사셨을 때에도, 3년간의 사역 중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완벽한 기다림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해치우는 것’ 말고 더 아름답고 원대한 뜻이 있으셨겠지요!)

기다림의 대한 예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들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를 자꾸 하나님께의 자리에 올려놓게 하는 속삭임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니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아래에 있으니 내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없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다림의 명령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림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기다림은 저에게 참 어려운 것들 중 하나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줄을 기다리는 것, 소포가 집에 배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라면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등 하나같이 좋지 않은 감정만 떠오르게하는 기다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만이 아닌 숨쉬는 삶의 모든 순간속에서 - 심지어 소포를 기다릴 때에도! - 내 삶의 쉽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기도: 저의 삶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림 또한 그분의 영역임을 알고, 또 아는 것을 다른 이와 지혜롭게 나누길 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때를 잠잠히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힘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24)

2019년 사순절기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나의 영적생활을 담금질하는 이 시간 부담스러운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먼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소개합니다.

“오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시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유혹”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2012년으로 기억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던 전주 선교사님께서 잠시 본교회를 방문하셔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함께 선교활동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9년 주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시어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담없이 느꼈던 이 말씀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구하면 받고,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데 왜 자꾸 부담이 커지는 걸까요?

아마도 주님은 제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부담이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영적 담금질을 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사순절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영적 담금질을 준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고통이고 시련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히 받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하는 것

곽서영 집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능자 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작년 여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11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 생계에 있어서는 여유가 없었지만, 주님이 나와 가족을 내버려두실 리가 없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큰 아이가 먼저 경험한 단기 선교에 이번엔 함께 갈까 하는 망설임을 갖게 되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와 닿아서 더욱 이번에 가기를 결단했으나 현실은 여러가지를 핑계를 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일단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시작하니, 물질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 말씀 등으로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여건도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파송예배를 위해 “나 주님만 따르리” 라는 찬양을 남들 앞에서 부를 땐, 과연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사전 미팅 때, 선교는 success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serve 하러 가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그랬다. 가기 전엔 “과연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조금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과 준비 미팅을 할 때엔 과연 잘 어우러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었고 잘 알지 못하기에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주님이 서로 다른 모양의 우리들을 퍼즐 맞추듯 맞춰 주셔서 함께 일할 때 하나되는 기쁨을 얻었다. 첼리스트는 그림을 그렸고, 예쁜 아가씨들은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며, 우쿨렐리를 연주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우쿨렐리를 가르쳤고, 목사님은 연극을 하였고, 한번도 큰 차를 몰아보지 못했다는 청년은 비포장도로에서 운전했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일을 했지만, 아이들이 기뻐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에겐 받은 감동과 은혜가 컸다. 자신이 잘 못 하는 것을 도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는 우리를 도우실 자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서로 의논하고 서로 맡은 사역을 뒷받침하는 일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계획한 일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고,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 때, 일상을 벗어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밤에 불빛이 없는 그 곳에서, 보스톤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엔 항상 있었을- 크고도 뚜렷한 수 많은 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준비한 일정을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미션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무지개를 보았는데 마치 우리에게 대하여 잠잠히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인듯 했다. 단기 선교의 경험이 내 건조해졌던 믿음에 단비가 되어 주었다.

기도: 뉴멕시코의 이덕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은혜가 뿌려지고 나바호 원주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 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시편 37:16-26)

로마 제국이 거의 1,500년간 땅 위에 건재하였었는데, 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동맹의 주체가 바로 ‘Do ut Des.’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유리하고 다른 나라가 불리한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똑 같이 유리한 조건을 토대로 로마는 이웃 나라들과 상호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에게 받을 것은 받고 댓가로 로마시민권을 준다든지 그에 합당한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정책이 로마를 로마 제국으로 발전시켰고 ‘Pax Romana’ 가 되게 했다고 서강대 교수 이신 한동일 신부님이 피력합니다.

‘Give and take’ 의 정신으로 살아도 이렇게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하게 합니다. 먼저 ‘take and take’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팔이 부러져서 가진 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번째로는 ‘give and take’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이를 실천하여 1500년 동안이나 건재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give and give’ 의인의 모습입니다. 자손이 복을 받되 영원한 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Give and give and give의 모습이 바로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의 모습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다는 말일까?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종일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푸신 분은 ‘give and give and give’ 를 끝없이 하신 분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복을 내리십니다.

곧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의 섬김으로 인해 주님의 온전한 축복이 온 세상에 베풀어집니다.

St. Catherine of Siena라는 성녀가 있습니다. 이 분이 Saint가 될 수 있었던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주님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릴 때는 사도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렸다고 합니다. 이 작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다 보니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며 사는 축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웃을 주님으로 사도로 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늘 주님을 실제로 만나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이 바로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닐까요?

<2018. 2.18. 주일 설교문 중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

최학수 집사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출애굽기 11:10)

2016년 겨울과 봄 사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였다. 그리고, 그해에는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날의 끝자락에 너무 이른 3월말에 Easter를 맞이하면서 생각하였다. 이 겨울이 언제 가려나... 에구, 내 삶하고 똑같네... 어떻게 맨날 추워...

그리고는 4월 1일, 거짓말처럼 60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와 선선한 바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날이 찾아왔다. 바로 내가 Beth Israel Hospital을 떠나 Mass General Hospital에서 일을 시작하는 첫날이었다. 마치 10여년 전 나의 첫 다짐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날이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은 2005년에 아내인 안나와 들어서 보스턴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유준이를 주셨고, 보금자리도 주셨고, 미국에서 살게 되었고, 포지션도 올라가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그 시작은 내가 처음 지도교수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에서 시작되었다. I'd like to work with you for the next 10 years! 나는 그에게 룡텁 꼴이 무어나고 물었고, 그가 하버드에서 Full Professor가 되는게 꿈이라고 말할 때... 다시 왜냐고 묻는 나에게 그건 “Something” 이라며 너도 되면 안다고 하시던 그에게 나는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기억한다. 그 당시 무뚝뚝하던 보스가 보인 그 흐뭇한 미소를...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천재이지만 괴팍한 성격의 보스 밑에서 10년간의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억압당하며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걸어서 3분 거리의 아파트에 살면서 일속에 묻혀 살았다. 매일 이어지는 외과의사들과의 수술들, 유명한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들. 그리고, 매순간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들과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약속한 10년이 지나버렸다. 그리고는 광야에서의 더 혹독한 훈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사이 많은 것들이 변화였다. 내가 첫 그랜트를 받고 승진을 하게 된 2008년, 보스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을 해 주셨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Good Mentor Award를 추천하여 받게 하였고, 우린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 그런 보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며 점점 변화여 갔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말처럼 하버드의 정교수가 되고 나서는 램을 떠나게 되었다. 처음 나에게 말한 인생의 목표를 10년만에 이루고 자신이 만든 회사의 CEO로 옮기었다. 너무 축하할 일이었지만...

나에게 큰 문제가 찾아왔다. 그가 옮기면서 같이 사용하던 모든 장비와 재료, 그리고 그랜트를 가지고 떠난 것이다. 오직 페이지해야 할 포스닥과 학생들만 남긴 채... 막막했다. 2014년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나에게 남기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 보스가 정말 원망스러웠다. 10년이 되면 내가 먼저 떠나려 했는데... 그가 그렇게 떠난 자리에 남아... 나는 남겨진 사람들의 월급을 걱정해야만 했다. 절실하게 연구비를 찾아서, 서포트를 찾아서,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삶이 더이상 즐겁지 않았다. 자다가 일어나 머리를 뜯은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다. 그것이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걸... 나를 내려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 혹독한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 하는 법과 “겸손”이라는 두 단어를 배우게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걸어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룬 작은 것들도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번의 사순절을 거치며 훈련되어가는 나를 보았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꾀대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시간이었다. 그러는 동안 교회에서는 부.청.을 졸업하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집사회에서 청소부장을 맡아 교회를 깨끗이 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배우고 따를 믿음의 선배님들을 세우시고,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내가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곳은 내가 15년 전에 처음 MGH로 박사후 연수를 오기 위해 일본에서 나를 인터뷰했던 빅 보스가 쓰던 오피스이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BIDMC에서 10년간의 훈련을 겪게 하신 후 많은 준비를 시키신 후에 오게 하셨다. 그리고 Coram Deo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매일 아침 출근 후 이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오늘도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이에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족에 대한 첫사랑을, 그리고 저에
일에 대한 첫사랑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아멘.

3/12(화)

하나님의 선물

김향인 집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최근 읽은 글 중에 임영수 목사님의 “인생의 사계절” 이라는 책에… 우리들의 삶을 사계절로 비유한 글을 읽고 지금 나는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듯…

나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각 계절마다 아주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봄에는 좋으신 믿음의 부모님 사랑을 선물로 받았고…

내 인생 여름에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제 내 인생은 여름의 끝자락에 있고, 가을을 바라본다. 책에서 임영수 목사님은 인생의 가을은 삶을 좀더 깊이 있게 단순하게 살아야 할 시기라고 하는데…

울 해도 부활을 기다리며…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받은 선물 자체인 나의 인생 속에서 각 순간들을 이제 그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또 그 분의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이 인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없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대해 봅니다

기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 59:2)

어느 구약학을 전공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실 때 속죄제 시연을 보게 되었다고 하신다. 목사님의 이름을 목에 건 양, 즉 목사님과 동일 시 된 양에게 목사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 참혹함에 너무나 충격을 받으시고 죄를 지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셨단다. 그런데 하물며 양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니 더 더욱 죄를 지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셨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나 쉽게 대속함의 은혜를 받아 드렸구나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살아온 것 같아 부끄러웠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고난을 묵상하기 앞서 죄를 짓지 말며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할 것 같다. 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하여 영적인 시야를 가리우고 소통을 막고, 세상의 편안함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 같다.

요즘 세상은 위법과 정법을 교묘히 오가는 삶을 살더라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적 삶이라 추구하는 삶이 왜 나쁘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다는 말씀으로 살겠다 하면 경쟁사회에서 도태될까 염려되어 사회적 집단 이기심이 작용하게 되는 것 같다. 같이 하면 죄가 가벼워지는 것 같은 심리인 것 같다.

풍요로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것 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신앙인 우리도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려는 세상 유혹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아울러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한다.

기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았던 담이 헐어지고 생수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아멘.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최재원 집사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1:35)”

초보 신자인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니 다양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 기도는 주님과와의 교제다.

- 주기도문이 최고다.

- 말 많이 할 필요 없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 자신의 목소리와 주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 주님은 재잘대며 자신의 모든 일을 아뢰는 막내의 기도도 들으시고, 묵묵히 주님 옆에서 귀 기울이며 듣는 맏이의 기도도 들으신다.

묵묵한 맏이의 기도라니...역시 아직 어렵습니다.

한 선배 교우님이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를 읽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시인의 통찰은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순간,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는 이렇게 가깝게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조용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고국에 계신 어머니의 주름 가득한 얼굴이 생각날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 세월호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들을 수가 없냐던 젊은 성도의 푸념에

묵묵히 듣고 있던 우리는 그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고

그때 이미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그저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눈을 감기만 해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기도: 주님,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당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평하고, 껍부리지 말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진정원 집사

3/15(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19)

‘일회용 플라스틱 병, 컵, 비닐을 지금처럼 버린다면 2050년 무렵에는 바다 플라스틱
총량이 물고기 총량보다 많아질것으로 추정된다’ 는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고자 결심을 하고 실천을 시작했다.

남은 반찬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던 플라스틱 랩을 안쓰려고 남은 반찬 접시를 말끔히 비워달라고 남편께 부탁하고, 지퍼백을 가끔씩 적게 사용하려고 용기에 담고, 쉽게 집어가던 일회용 숟가락, 포크도 집었다 놔다 망설였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다가 차안에도 가방안에도 홀리고, 되도록 환경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 지갑에서 지출되는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부엌 살림을 정리하는 시간도 더 필요하게 되었다.

수퍼마켓에 갈때는 차 트렁크에서 시장 바구니를 깜빡 잊고 와서 다시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이번에 그냥 눈 딱 감고 일회용 쇼퍼백을 사용할까, 딱 한번만? 오늘 내가 사용하게 될 수퍼마켓 일회용 봉지 한두개가 매년 바다로 들어가는 8백만톤의 쓰레기 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고... 괜찮을 듯해 ~~~” 이렇게 위로도 하며 망설이기도 하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번거롭고 비용도 더 들고 참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게 되었다.

하루에도 “아이고, 쉬운일이 없네” 라고 몇번을 혼잣말을 하며 하루하루 지냈다.

어느날 유치원 간식시간에 옆에 앉은 학생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가져간 숟가락을 보며,

“Wow ~~~~ warm and fuzzy... Look at it, not white plastic spoon.”

“I am really proud of Jeong Won. Yeh ~~~~”

(제가 일하는 유치원에서는 사랑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정의롭고 바른 일에 힘쓰는 것,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Warm & fuzzy라고 표현한다)

함께 간식을 먹던 학생들은, 불평 많고 게을렀던 부족한 나에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작은 손으로 박수 선물까지 주었다. 오후에 집에 와서 꼼꼼히 생각해보니, 4-5살짜리 어린 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나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도 세세히 적고 계산테고 기억하실텐데, 아차 싶었다. 세상의 아름답고 귀한 모든 것을 일일이 창조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불평하고 껍부리고 안 할까 고민하고, 이러한 모든 엉뚱한 나의 자신에 대해 반성하며 결심했다. 올해의 사순절에는 특별히 환경 문제를 위해 뭘 해야할지에 대해 기도하며 고민하고 공부하고 힘껏 노력해볼 것...

책에서 보았던 시 한 편을 나눠봅니다.

뿌리째 뽑혀진 수림의 아픔, 오염된 바다의 울부짖음, 말라버린 지 오래된 하천,
기름 찌꺼기로 뒤덮인 황폐한 해변과 그 신음 소리, 그 속에서 함께 괴로워하시는 당신을 느끼게 해주소서

죽어 가는 자연과 함께 우리도 죽어 가고 있음을...

자연과 인간은 나누일 수 없는 하나의 생명임을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아멘...

기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잘 보존하도록 힘껏 노력하며 매일매일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3/16(토)

아버지의 마음

정유미 집사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My heart says of you, “Seek his face!” Your face, LORD, I will seek)”
(시편 27: 8)

최근, 나 전달 (I-Message)대화법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략)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자녀의 그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무턱대고 화를 내는 것보다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받을 영향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생략)’

한달 전, 다섯살이 된 우리 딸, 가끔 사춘기 소녀 같습니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왜 나를 괴롭히는 거냐? 너 땀에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말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는커녕 결국 딸아이의 원망섞인 울음으로 끝을 맺곤 합니다.

그런데 나 전달(I-Message)대화법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부모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 해야지 결코 아이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합니다.

저는 옛 친구들-이십여 년 전, 막걸리잔을 함께 기울였던 우리들은 이제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한다. 주님은 각 자의 시간에 각 기 다른 방법으로 한명씩 완전히 뜯어고쳐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셨다. -과 이것을 나누었고 그 중 한 친구가 늘 그렇듯이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이고 있을까? 자기가 하고픈 거 하느라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주님이 I-Message로 말하신다면?” 라는 카톡 메시지와 함께..

나의 얼굴을 구하렴~
그럼 네가 꿈 꿀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단다.

네 영혼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걱정을 먼저 몰아내주마.

나는 마치
과포화(過飽和-supersaturated)된
구름 같아서 네 생각의 바다에 곧
'평안의 비' 를 쏟아 부을 수 있다.

나의 일은 “은혜” 를 베푸는 것,
너의 일은 “감사” 히 받는 것이지~☆

이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고안된
'완벽한 조화' 란다.

내 은혜를 감사히 받음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렴~!

네가 찾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바로 '나' 입을 기억하렴~!

네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넌 만족하게 된단다.

나를 찾고자 하는 목표가 약해질 때,
나는 보이지 않는
네 인생의 배경으로 사라진다.

여전히 그 곳에서
넌 바라보며 기다리지만
넌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사실 '나의 빛' 은
네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비추고 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포함시키도록
네 관점을 넓혀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렴~☆

나를 찾고자 하는 네 “열정” 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렴~!

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를 저를 용서하옵소서. 마음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상한 심령의 제사”

이영길 목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19)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이 죄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의 거짓화.’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들이 쌓여 질 때 우리의 기억은 거짓으로 새롭게 꾸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런 놀라운 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 바쁘게 살던 삶에서 멈추어 서서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다윗은 기억의 거짓화에 올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간음을 하였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포상의 뜻으로 휴가를 줍니다. 자신의 간음을 숨기려고...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자기의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찌 자기만 편하게 지내리오”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나리오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더 시나리오를 악해집니다.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와 같은 씨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자신의 깊은 죄성을 발견합니다. 아파합니다. 통회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눈물과 통곡으로 이 고백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St. Teresa of Lisieux가 지은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무서워 멀리 도망 갔습니다. 두번째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품에 던집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더 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끝으로 부탁합니다. 벌을 주되 키스로 벌을 쥐 달라고... 아버지는 기쁘게 아들에게 키스합니다.

다윗은 두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어느덧 삶의 축제가 찾아 옵니다. 이 삶의 축제는 새로운 경지로 발전이 됩니다. 13-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죄의 도구가 되어서 아끼던 부하 장군도 죽이고 간음했던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갑니다. 아울러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가만히 놓아 두면 우리는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반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 다윗처럼 최고의 찬양인이 되어 갑니다. 죄의 고백은 최고의 제사입니다. 결국 다윗이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요?

〈2018. 2.11. 주일 설교 중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2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려서는 아무 종교 생활없이 그냥 자랐기에 나이 40에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지도 어언 30년이 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그렇습니다. 들어서 알고 예수를 앎으로 믿음생활, 주일 성수, 말씀읽고 묵상하기,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이웃사랑, 참으로 많은 것을 가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30세에 시작하신 공생애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길지 않은 세월 속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로 인해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그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주님의 사랑, 구원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해야 하는 저희들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이웃사랑, 나라사랑, 가족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데 동참하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나만 잘 살고 하늘나라 갈 것을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대의 남은자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Are you on board?

장봉준 집사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6:8)

교회의 천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15년 전쯤, 노르웨이에 출장을 갔다가 바이킹 박물관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바이킹들이 대양을 누볐던 배를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때 보았던 배의 모습과 교회의 천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장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처마를 향해 내려오는 원목들이 용골(keel)을 중심으로 좌우로 늑골과 뱃전을 붙였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정을 의미하는 많은 비유 중 흔히 쓰이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만이 탈 수 있었던 방주. 방주는 일반 선박과 비교하면 여러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크기가 다르고, 파도를 가르며 헤쳐나가는 선박과 달리 부유하거나 떠다니는 방주는 노나 돛 같은 동력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방주가 없었기에 부르심에 응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120년 혹은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그 오랜 시간 동안 맑은 하늘 아래 먹고 즐기는 사람들 눈에 홍수를 대비해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은 미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로 비쳐지지 않았을까요? 배를 지으면서 노아는 ‘왜 배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함께 배를 지을 조력자는 예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많은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드디어,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동물들을 다 태운 후,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구나’ 일말의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점점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고, 세상이 잠겨 가는 모습을 보며, 험난했던 지난 날과 자신을 조롱했던 세상으로부터 구원에 도달했다는 안도를 했을 겁니다. 홀로 남겨진 가족들은 수많은 동물들을 먹고 보살피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오물을 치우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었을 겁니다. 협소한 공간에 왕처럼 누릴 여유보다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소명 하나로 험한 일과 더러운 일을 가릴 만한 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갇힌 공간에서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평을 한다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제는 일주 이주. 몇 십일 지속되는 비, 어두운 창 밖, 그리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어쩌면 물위에 떠도는 속세의 파편과 떠도는 주검을 보며, 구원으로 간다는 안도감보다는 의심과 공포감이 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험한 파도가 칠 때면 배가 쪼개지거나 난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비가 멈추더라도 내 밭을 수 있는 일말의 땅끝 자락이 있을까 하면서. 또한,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아닌 답답한 공기와 갇힌공간으로 인해 육체적인 불편함과 고통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었을 지도 모릅니다. 방주의 특성상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해류가 이끄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위에 떠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홍수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표류하다가 홍수가 멈추고 물이 건지면서 방주 안 생명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 보내면서 그제서야 원망과 의심으로 지나온 시간을 회개하고 비로소 진정으로 새 세상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방주에 탔던 노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배에 오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올라탔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편하거나 안락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좁은 공간을 지날 때 마다 동역을 하는 사람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좁은 곳을 지나야 하고, 원하지 않지만 손을 내밀어 힘을 합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 ‘내가 이 배에서 내려야 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 배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캄캄하고 폭풍우에 표류하는 배 안에서 흔들리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 걱정과 불신으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배에 오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승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정된 긴 항해를 마칠 때까지 이미 우리가 가게 될 여정이 험난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의 천장을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에 오른 나 자신은 동역자를 위해 손을 내밀었는지, 주님이 귀하게 주신 구원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구원의 방주는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새 땅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기도: 주님, 우리의 여정의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셨 사오니, 나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마주하길 원합니다.

김화옥 집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40)

태양은 지구를 당깁니다. 지구도 태양을 당기고 있습니다. 서로의 중력으로 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거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선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 합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편 힘을 주는 만큼, 같은 크기의 힘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간 이민아 목사는 이어령 교수의 딸입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이 가슴 아픕니다. ‘내게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있는 뒷모습 밖에 없다.’ 그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적에 이어령교수는 매우 바빴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비인 나 역시 아이가 잘 하겠거니, 잘 자라겠거니 기도만 하고 있었습시다. 혹시, 아이가 아버를 절실하게 필요할 적에, 아비인 나 역시 등만 보인 건 아닐까? 아이와 마주했다면 아비인 나 역시 아이만큼 은혜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침에 샤워하면서 떠올린 잠념입니다. 머리를 감을 적입니다. 머리를 감기위해서 손으로 머리를 빽빽 문지릅니다. 당연히 머리는 씻겨질 겁니다. 한편 머리 감는 두 손도 깨끗해지는 걸 알았습시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 일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나 역시 은혜 받는 걸 알았습시다. 내가 누군가와 기도로 마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맞은 편에는 유리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매 주일이면 마주합니다. 이른 아침 예배적에 뜨는 해가 비출 적엔 더욱 장관입니다. 예수님이 겿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잠에 푹아떨어져 있고요. 잠결에 예수님의 기도 목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 있는 제자들과 마주하고 싶어하셨을 테지요.

헤엄 칠 적엔 손과 발로 물을 뒤로 쳐냅니다. 대신 몸은 앞으로 나갑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의 또 다른 예입니다.

주여,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이 저를 당기고 계시는 힘을 강렬히 느낍니다. 제가 돌아와야 할 진데, 그래야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이 나를 당겨 깨우시는 목소리만 들습시다. 저를 깨워 눈길을 더 가까이 마주하게 하소서.

기도: 주여, 깨워주소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껏 당겨주소서. 저 역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여, 힘을 다해 헤엄쳐 당신께 나가길 원합니다. 물리학을 통해서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예전에 유초등부 교사로 섬길 때, 담당 전도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였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라는 뜻이며, 그러한 직분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다고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시라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왕은 통치자로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웠으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셨다.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종종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더욱 와 닿았던 것이, 보스턴에서 11년간 일해왔던 직장에서는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늘 혼자 감사기도를 해왔었는데, 마지막 2년간은 한국에서 온 한 포닥과 함께 일을 마친 후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 시간이 내겐 참으로 귀중했다. 바쁘고 어려운 업무로 놀릴 때, 또는 재정적으로 불안해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보고 겪었을 때, 그 기도시간은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게 하고 내 영에 양분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 상사를 위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구하게 되었다. 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제사장의 특권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도 내가 속한 곳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복을 비는 특권을 누린다. 기도 내용이 이루어져서 중보자로서의 직접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게 큰 기쁨이 된다.

기도: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속하든지 주님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세워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세요. 아멘.



문에 얽드리는 죄

박신영 장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얽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창세기 4:7)

그날 밤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죄에 대해 생각한다.

가인의 문에 얽드리던 죄,
그의 낫빛을 바꾸었던 죄,
죄의 소원...

나의 마음에 머리를 드는 죄의 소원들을 살핀다.

분노와 미움이 머리를 들 때...
욕심이 머리를 들 때...
나태와 게으름이 자리를 잡고...
자기자랑과 교만한 마음이 머리를 들 때

나는 흠에서 나서 흠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항상 분노하고,
쉬지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작지만 선한 일에 열심내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백하며, 주님의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Almost twenty years ago,
God gave us a second chance...

박 숙 교우

3/23(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찬송가 384)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항상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이 죄인 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약 20년 전에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때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powerful 인지, 또 다시 마음 깊이 생각해 봅니다. My sister went through a such long journey to her recovery after liver transplant, she had to learn how to talk and walk all over again. Despite of all that, her only hope and determination was to survive for her two sons.

하나님은 우리 언니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언니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들들도 잘살고 있고, she also has the beautiful grandchildren. 우리는 다만 주님께 감사할 뿐, 내 어찌 주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있을지?

어제는 내 모습 동그라미였는데,
오늘은 내 모습 삼각형으로,
내일은 내 모양이 사각형이면,
모래는 내 모습 무엇으로 보일까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이 부족한 죄인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이영길 목사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고린도전서 9:18-27)

사순절은 참회의 기도와 구제 그리고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절기입니다. 올 해도 사순절을 뜻 깊게 보내고자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자’ 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회로 뜨거워진 눈시울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 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는 구제의 삶 곧 ‘give and give and give’ 의 삶을 통한 축복을 누리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절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절제는 육신적 절제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식과 같이 육신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시름 몸으로 쓰듯이 공부를 몸으로 하듯이 신앙생활도 온 몸으로 해야 함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몸으로 하는 신앙 생활을 회복하고자 이런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중략>

사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절제를 강조하는 더 큰 숨은 뜻이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나 썩지 않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나 모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썩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텔런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Chloe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Chloe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4살난 딸에게 snowboard를 가르친다고 해서 Chloe가 됩니까? Chloe보다 훨씬 더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될까요? Chloe는 snowboard를 타면서 땅 위에서 15ft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나 가능할까요?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추구하는 자들은 먼저 텔런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곧 텔런트가 우선이고 그 후 절제가 따라옵니다.

반면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차지하려는 자들은 어떤가요? 여기에도 어떤 텔런트가 먼저 필요할까요? 정반대입니다. 절제가 먼저입니다. 절제하는 자들에게 각자에 맞게 놀라운 텔런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귀절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후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는데 사실 이런 능력의 종이 되기 전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먼저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절제의 사람인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절제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몸을 절제로 감싸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자들을 찾아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몸입니다. 온 몸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제 없이는 온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남은 사순절 기간 절제로 우리들의 신비한 몸을 길들이십시오. 절제로 길들여진 몸으로 홍해를 가르십시오.

<2018.3.4 주일 설교 중에서>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2)

197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제 일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시간이었고, 제 삶에 늘 힘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1972년 2월 도미하여 처음 3년동안ECFVG (수의학 교육 자격시험), Exam. For National Board of Veterinary Medicine(전국 수의사 시험), Exam. For State Board of Veterinary Medicine(주수의사시험) 등 여러 단계 시험에서 수차례 낙방하여 제 자존감이 마냥 땅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고, 1970년 3월생 아들 지형 (James) 에 이어 1974년 5월에 두번째인 딸 지원(Jane) 이 출생하여 이젠 정말 가장의 무게가 두 어깨를 짓 누르고 있었을 때, 한편 필라연합교회에서 창세기와 마가복음 그리고 로마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다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중에, 밤 근무를 하는 아내를 VA 병원에 데려다 주고 저 혼자197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예배중 옆 성도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별안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제게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바로 다음달 1975년 1월 중순에 Massachusetts 수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소야, 힘내라!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2016년 12월31일자로 40년간의 임상을 접고, 2017년 9월 중순에 Tewksbury animal Hospital 건물을 처분할 때까지 9개월간도 도미 후 첫 3년간과 같은 고통과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막 벗어나니, 2017년 10월에BNI 의 ‘러시아 선교여행’ 을 다녀오게 되어서 32년간 장로 시무 때에는 한번도 못한 ‘선교’ (비슷한?) 맛도 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즈음은 제 마음이 늘 훈훈하고 걱정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여 모든 일에 감사, 감사, 감사만 하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감격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70이 훨씬 넘어 이제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꼭 새겨 오니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기도: 남은 생애 <주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주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미옥 집사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
“바보가 된 거 아니니?”
“당당했던 성격 어디 갔니?”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한창 생기가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치던 젊은 시절, 주위사람들이 내게 한 말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나의 모습은, 매사에 당당했고 예의가 바르고, 리드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넘쳤던 반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는 급한 성격이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부지런하고 추진력 있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 나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부지런히 성경공부와 교회봉사를 하고, 새벽기도와 모든 집회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싶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기존의 나의 본성에 따라 성격대로 믿음생활을 한 것임을 깨달았다. 중직을 맡은 분들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놓아야 할지 아래에 놓을지의 문제로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며 본이 되지 않는다고 정죄하였고, 서로 내 자녀가 피아노 반주를 해야 한다며 언쟁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분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다. 때로는 전도집회와 구역예배 심방 등에 열심 없는 성도를 게으르다고 마음속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남을 배려하고 헌신한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상대의 형편과 기분은 무시한채, 오로지 내 방식대로 사랑을 전했다. 열심은 있었지만, 나의 믿음생활은 허전하고 지쳐가고 있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며,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시와 고통을 받으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며 감사와 은혜로 인해 나의 모든 생활이 새로워졌다.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미워야 하는데 밋지 않았다. 간혹 억울한 일이 있어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야 하는데 불안하지 않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염려해야 하는데 염려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믿음 생활에서 자유로워졌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이제 내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할 수록 이 모든 일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진리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기도: 제게 허락하신 이 기적같은 축복을, 복된 소식을 세상 끝까지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아멘



“고레스 왕1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 려했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에스라 6:3)

이스라엘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의 하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일 것이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성전도 파괴되었다. 이후 이방왕인 고레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새 성전의 건축도 이방왕의 도움에 힘입어 추진되게 되었다. 위 본문에 따를 때 새 성전은 고레스 칙령에 기초하여 역시 이방왕인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이방에 의하여 무너지고, 또한 그 재건축이 이방의 도움에 힘입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것이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예수님의 피흘림으로 휘장이 찢기기까지는 감히 범접조차 허락되지 않던 지고지순의 공간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순혈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이었다. 이 공간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닌 이방왕의 도움으로 겨우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 보인다.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이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달리 택함을 받은 구별된 민족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멸시의 대상인 이방민족의 도움을 얻어서 비로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존감 상하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에게만 향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민족조차도 이웃과 힘을 합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내보이셨다. 이때 비로소 성전은 유대인만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모두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든 그들과 합해서만 비로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 보이셨다.

내 삶에 있어서 성전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만의 성전이 아닌 이웃과 어울릴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성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 성전은 이제 비로소 그 건축의 틀을 잡기 시작한다. 인생여정의 황금기와 내 안 성전의 건축시기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왕권의 황금기는 다윗왕 때 기초가 만들어졌으나, 성전에 대하여는 세속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솔로몬왕 때 비로소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셨다. 내 삶이 비록 화려하다 해도 그 화려함속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거치며 다시 성전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성전건축을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있어서 성전은 고난의 도움으로 비로소 그 건축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고난은 자신의 성전건축에 있어서 다리오왕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고난이라는 외부의 자극으로 성전건축의 계기가 싹트기 시작하고, 고난에서 이어진 열정으로 그 완공을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가는 나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시기에 삶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희망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로 지어진 성전이 비록 금은으로 치장한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나라마저 잃어버리고 떠돌다가 다시 세운 성전이니만큼 더욱 절실하게 삶의 중심에 두게 되게 여호와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내 삶에 있어서 노년의 초입에 새롭게 이어지는 성전도 같은 의미이다. 주변에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몇 대에 걸친 신앙의 축적으로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은 은혜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돌아보면 40이 넘어 시작한 신앙은 항상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린 모습이다.

그렇기에 새 성전의 모습은 불같이 타오르는 정열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내려놓음의 성전으로, 이전에 즐기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안에서 안위를 느끼는 평강의 삶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늦게 만들어진 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 성전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조그마한 슬픔에도 공감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소박한 꿈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본다.

기도: 하나님 이전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새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정은아 집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53)

3년 전 처음으로 많이 아파보았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그리운 저는 어릴 적 아픈 것을 보살핌 받는 기회로 삼아 살짝 즐기기도 했던 거 같은데... 30대 후반에 찾아온 이롭도 모르겠는 피병같고, 평소 자랑할 건 건강밖에 없으며 입방정을 떨고 다닌 것에 대한 별 같은 이 증상들은 결국 불면증까지 동반하면서 의식이 있는게 더 무섭고 싫을 만큼 심각하게 절 괴롭혔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너무 큰 희생을 해주면서도 와주었는데...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지금의 절 보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한 두 번 응급실을 다니며, 밤을 꼬박 새우며, 평소 진통제 한 알 먹는 것도 무슨 마약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제가 더 강한 진통제나 수면제를 주었으면 바라던 그 순간 ‘나도 죽을 수 있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게 된다면 제일 후회되는 것이 3가지로 추려졌는데 그 중에 전도하고 싶었던 언니에게 시원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하나님을 뵈려고 생각하니 책망받기 싫었나봅니다. 흐흐.. 그리하여 급한 마음에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언니께 저희 집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간호해주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언니가 제 옆에 앉으셨을 때 망설임없이 “언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왜 얼굴이 빨개질까요...그 이후로 너무 멀쩡하게 제가 살아 있음에... 너무 유언같이 말한 그 날의 제가 좀 어이없습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조근조근 설명을 하었는데 설명을 다 들으신 언니의 질문이 단번에 저를 쭈글쭈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은아씨가 한 잠도 못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시길래 (마태복음 5장 16절 인용) 진짜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제 탄엔 오리보다 심리도 가주지, 오른뺨도 칠 기세면 뒤돌아서 억울할 지언정 일단 맞자는 마음으로 대했던 그 모든 행위가 믿음이었다고 생각한 그 믿음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날 이후 며칠이 지나 한국에서 다급하게 날아와 주신 친정 엄마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남편이 나가면 제 옆에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3개월 계시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습관적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말씀을 3개월 무한 반복하셨습니다.

“은아야, 네 힘으로는 육도 영도 온전하게 살 수 없어. 너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보혈이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피를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른다고 고백해야해.”

원래 통성기도, 소리까지 시뻘건 박수, 포도주로 비유된 예수님의 피는 좋은데, 대놓고 피는 웬지 너무 강해서 싫은 참… 교양있고 싶은 저는 “엄마, 뭘 피까지 먹고 마시라고 그래. “하면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3개월이 흐르고 친정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나서 그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 결론은 내가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 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나니 내가 예수님의 보혈과 상관있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착한 행실에 앞서 예수님의 보혈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옳다고 여겼던 아무 힘도 없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는 진짜 힘있는 믿음을 갖추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한 것 같은 소중한 인연이었던 한 언니의 구원을 위해 다시 말로 전도할 기회는 없었지만 예수의 보혈이 온전히 언니께도 흘러가 구원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갖기를 기도하기로 합니다.

“O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기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왕의 십자가

최효영 교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저희 가족은 여섯 식구입니다. 아빠, 엄마, 언니, 형부, 남동생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리는 일입니다. 작년 10월 어느 날, 저희 가족 단체 카톡방에 제가 우리 각자 주님께 감사한 것을 올리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효영이가 감사하는 것:

- 1) 새 날을 또 주신 것
- 2)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 3) 따뜻하게 자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 4)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
- 5)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 6)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아는 것
- 7)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 8)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 9)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인 것
- 10)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것.

몇 시간 후, 형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록이가 감사하는 것:

- 1)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 2) 그것을 믿는 믿음
- 3) 그로부터의 죄 사함과 구원받음
- 4) 그로부터의 무한한 사랑과 생명
- 5) 그로부터의 열매 맺음.

머리를 한 대 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다. 분명 작년 사순절기간이 끝난 후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접어두고 다시 바쁜 생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감사하는 것을 쓴 메시지를 읽으니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감사는 참 “self-centered” 된 이유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나 쉽게 불평 불만을 토로했는지 저의 부끄러운 지난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게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믿어질때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저는 주님께 그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처음 읽고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확 와닿게 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고난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로부터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인도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집사가 된다.

최재원 집사

3/30(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12)

집사가 된다. 기쁘다. 이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간다. 십자가의 길에 뿌려지는 또 하나의 자갈이 된다. 책임이 생기고 새로운 의무도 주어질 것이다. 기쁘게 맞이하자. 두렵다. 잘해내야 할 텐데 걱정도 된다. 기쁨, 설레임, 걱정, 두려움...다 조금씩 맛보면서...그냥 그렇게 집사가 된다.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도 그랬다.

대단한 회심이 있지도 않았다. 그냥 그래야 할 것만 같은 막연한 느낌?

이끌림이나 부르심도 없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작은 동요만이 있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인지도 모른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던 그 놀라운 등장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당연하다. 난 모세가 아니다.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동포들도 없지 않은가?

아니다...솔직히 기대했었다.

도마에게 오셨던 주님! 그런 영화같은 순간이 나에게도 올까? 나도 의심은 도마 못지 않다.

가끔 생각했다.

나에게도 오셔서 못자국을 보이시는 주님...

조용히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나...

은혜로운 영접을 경험하고 제자가 되어 나서는 나...

그러나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래...욕심이 너무 많았다.

작은 동요는 무시하고 그렇게 지냈다. 그럴수록 고뇌는 강렬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힘에 부쳐 주님을 찾았다.

밀려 밀려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어떻게 세례도 받았고, 이제 서리집사가 된다.

아내는 이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로 알렸다. 장모님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셨다.

다른 길은 없다. 마땅히 당면할 일을 감당한다. 집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다.

기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달란트’의 다른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이요한 목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아직 땡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즐겨 쓰셨던 말씀입니다. 땡감은 아직 덜 익어서 뚫은 맛을 내는 감을 가리킵니다. 단감이든 홍시이든 잘 익은 감은 달콤한 맛과 좋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 익은 감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익지 않은 땡감을 베어 물면 온 입안이 뚫게 되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땡감을 먹은 사람은 입안에 있는 감을 뱉어 버리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부분까지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말씀으로 ‘땡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각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기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 하셔서 많은 달란트를 받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될 지언 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되길 바라는 것은, 과연 진실한 섬김의 마음에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같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16:24)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16:2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달란트’와 가장 비슷한, 아니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은사’나 ‘능력’이기 이전에,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달란트 = 십자가’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달란트’란 말을 ‘십자가’로 바꾸어서 기도해 볼까요?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십자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 하셔서 더 많은 십자가를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 같은 기도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 된 삶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가르칩니다(디모데후서 2:20-21).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되고 싶어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우리 삶에 되새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제 삶을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마음에 품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달란트 = 십자가’의 등식이 성립할 때 이어지는 ‘달란트 = 십자가 = 면류관’이라는 또 하나의 등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며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줄기도: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도 더 많은 십자가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09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a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마태복음 4:4)

四 자는 사람(人)이 하늘 나라(口)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에너지가 먹는 빵에서 나오지 않고 듣는 하나님 말씀에서 영생(永生)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것:

이 대답을 주신 예수님은 그 때 40일 밤낮을 굶으신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

960시간을 식음(食飲)을 전폐한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시험 당하시면서도 “먹기 보다 듣는 것을 강조하신 것.”

이 때 예수님의 몸 상태는 四(사)자로 사람(人)이 팔(八)로 분리 돼서 상식적으로 기아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시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 보단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사탄에게 전도(傳道)하신 것.”

그러므로 사순절(四旬節)을 통해 내가 하늘나라 영생 식구(食口)인 것을 재확인하셨으면 예수님께서서 두 팔을 벌려 환영하실텐데...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머무는 끝 순간까지 함께 하시어 영생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로마서 5:1)

‘평강’, ‘평안’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는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덩치 큰 단어 보다는 작은 평안이 가져다 주는 많은 결과들을 나는 많이 경험하며 산다. 공부를 제쳐 두고 게임에 몰두하는 아들을 보고 울화가 터지는 나의 감정대로 꾸짖을 했을 때와, 그 분노를 다스리고 침착하게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골라 속으로 몇 번이고 리허설을 한 후에 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년 전에 허리를 늘린 바지가 지금은 몸에 꼭 낀다고 수선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손님의 어처구니없는 말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나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웃이 작아지는 이유는 살이 쥘 것이 상식적인 이유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수 감사절의 연휴를 지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라고 유순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혹 작은 바람에 흔들려 무너져 내릴까 하여 비바람과 폭풍을 가로 막고 서신 주님 때문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출퇴근하는 길 가운데 호수를 양쪽으로 가로지른 길이 있다. 바람이 없는 날이면 그 호수의 수면은 구름이 담긴 하늘과 뿅뿅히 둘러싼 나무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 하지만 작은 바람이라도 이는 날이면 그 수면은 깨어진 거울처럼 아무 것도 비치지 못한다. 바람 없는 호수가 하늘과 주변의 나무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얻은 은혜(평안)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잔잔한 호수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삶의 역경 속에서 평화를 늘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한다. 역대하 20:12에서 유다의 여호사밧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략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대답하신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대하 20:17). 두려워하던 자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그 권위로 기적적인 능력이 임할 것을 믿게 하셨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승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린다. 전쟁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의 임재에 있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한 내적인 평안은 내 삶의 모든 곳까지 미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내면의 폭풍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평생 끝나지 않을 숙제를 나는 늘 가지고 산다. 나를 침몰 시킬 듯이 넘실대는 삶의 역경을 가로질러 그 역경의 저편으로 나를 건너가게 할 다리를 놓아주는 하나님의 평안, 그것은 나에게서는 흥해의 기적과 다름이 없는 기적이다.

어떤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그 고통의 저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기적적인 평안은 안식과 함께 먼저 우리의 영을 살릴 것이고 육체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셨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 이니이다.” (사26:3)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섬의 지도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엔 그 곳으로 가는 길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 그러나 보물(평강의 길)에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보물로 인도할 지도(하나님의 인도하심)를 구하는 일에는 태만한 나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진다.

기도: 주님 제 영혼에 바람이 일지 않아 누군가에게 선물할 만한 작지만 위대한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묵묵히 위로하시는 주님

김정선 장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36)

요즘 주위에서 몸살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친구들을 많이 본다.

가슴이 찢릿하고 그냥 눈을 감아도 마음이 아파온다.

‘아니 왜?’ 서부터 시작, 많은 질문들이 끊어오른다.

어린아이 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또 그들을 간호하시는 분들까지

기도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마음을 헤아려 본다.

정작 만나서 또는 전화로 하는 말은 고작

‘이제 곧 좋아 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도울 게 있을까요? 기도 할까요’

어제 읽은 책에는 이런 말이 정작 크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쓰여있다.

때로는 묵묵히 아픈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눈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고 ‘힘드시겠어요’

마음을 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사실 내가 그 아픔에 처하지 않고는

우리는 상대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지 못한다.

나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주님께 조용히 호소하면

묵묵히 들으시기만 한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해도

조용히 내려다보시기만 하신다.

그래도 주님께 매달린다.

그의 큰 사랑과 치유를 간구하면서

나는 눈물이 고이고 목이 막혀와서

주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멘

기도: 주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고통 중에 있어도 제 위로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대신 치유의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4-6)

참 부러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항상 밝고 명랑하다. 그런데 또 진지하기도 하다. 그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다. 그 웃음은 남을 헐뜯거나 조소하는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 여유롭고 진솔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같은 웃음이다.

한 사람의 삶이 어찌 매일 매순간 기쁘기만 하거나 즐겁기만 하겠는가! 그러나 그의 삶은 항상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여 옆에만 가도 그 축복이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 같다.

그 이름만 들어도 늘 소박하고 다정스러운 웃음이 마음에서 빛나고 얼굴엔 미소가 번져간다.

“안녕!” 반가운 인사 한마디 언제라도 편하게 건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까지 밝아지는 사람!

보석은 깊고 깊은 땅 속이나 험난한 가시덤불 길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매일 거듭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때에 ‘이 사람이다’ 혹은 ‘이 길이다’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보여주심이 참으로 감사하다.

어느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마음이 슬퍼도 한 번 웃어봐. 화가 날 때에도 한 번 웃어봐!”

“가끔은 우리 얼굴이 웃는 걸 보고 마음이 따라 웃기도 하거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도 항상 해맑게 웃는 얼굴 때문이 아닐까.

이 세상 가장 부럽고 닳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 한 장 쓰러 가야지! :)

기도: 오늘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



찬송이 넘치는 삶

강형민 집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때로는 삶이 힘겹고 일하는 것마다 모두 실패로 이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깊은 터널 속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주께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듯하고, 성경과 말씀 속의 주님의 보호하심은 내 것이 아닌 남에게만 있는 것같은 그런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은혜가 내게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주의 자녀가 아닌 듯싶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속사는 나라는 존재와 아무 상관없는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내게 들려주신 음성은 너는 찬송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하나님께서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창조의 주권과 목적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의 주권과 목적을 뒤집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배부시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는 내 삶이 내가 그리는 모양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길 위한 기원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올바른 주님의 질서가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7,18)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기 위함이니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로 천하만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부족한 자에게 배부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에 찬송이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힘겨움과 실패와 망황속에서 배부신 은혜가 나로 더 큰 찬송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나의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성하신 일들이 찬송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은혜가 충만한 분께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찬송의 제목을 주실 것과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 이 찬양을 들이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니 그 앞에 찬송을 드리는 우리로 그 거룩과 영광 앞에 겸손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But the Scripture Must Be Fulfilled

김유진 교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48-49)

“Am I leading a rebellion,” said Jesus, “that you have come out with swords and clubs to capture me? Every day I was with you,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did not arrest me.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This is the scene of Jesus being arrested due to betrayal by his close friend and disciple, illustrated at the end of the gospel of Mark. It's almost the point where the tension is reaching its peak.

Read along the verse again and picture yourself in the scene. Can you imagine how saddening it must have been for Jesus... People whom he saw- teaching, laughing, and perhaps even crying together at some point on a daily basis are now betraying Him, their teacher. Yes, it is also possible that they may not have been true or genuine with Jesus. Regardless, encountering betrayal is something that no one anticipates. It can leave scars, and in some cases even caus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 couple years back, I went through similar traumatic loss of a dear friendship, which I never anticipated. We had been closest friends for multiple years to a degree that I could share with her the things that I'd not with anyone else. One day, she completely turned her back and acted as if we were never that close before... After a year and half she somewhat confessed that she wa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and that was her coping mechanism, regardless, it still remains to be a such a hurtful experience... Imagine, if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to you... Or it is also possible that you might have had similar experience to mine... It must have been hard to understand why it was happening. Perhaps, you were angry towards God. Perhaps, you felt like you were lost. Perhaps, it made you think that you've done something wrong...

However, notice how Jesus responds to the circumstance; he says, “Every day I was with you,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did not arrest me.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Mark 14:49) He points back to the Scripture, the Bible. He knew the Bible. He knew the truth. He knew God. Not just “knew,” but truly “understood” the will of God the Father and obeyed it. He knew how to apply it to his circumstance.

You see, we cannot live a life of being Jesus' disciples without understanding the Bible. To be like Jesus is to know the Bible, to be able to apply to our day to day lives, and to obey God's will. But that does not happen in a day, it requires consistent and unhurried time with the Lord – meditating on the Scripture and praying to the Lord. One of gospel books, Luke, notes “But Jesus Himself would often slip away to the wilderness and pray” (Luke 5:16). Jesus, the perfect man and God at the same time, illustrates a good example of how we need to learn to stray away from the business and crowds to spend time with God, intentionally. Jesus didn't just spend time with God because He had some extra time, rather, He carved out time to communicate with God and stay close to the Truth. Only then, will we be able to say,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let God's will be done) despite whatever the circumstances may be.

Prayer: : Lord, Jesus, guide me to learn the joy of walking with You closely by meditating on the Words day and night. Let this servant s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영길 목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7-12)

남은 사순절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 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울리십시오.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주머니를 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구제의 축복에 동참하십시오. 세상적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했던 우리들의 육체를 쳐서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게 하는 절제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들의 약한 몸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이웃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십시오.

최근 한두 번 소개해드렸던 서강대 교수였던 한 동일 신부님이 계신데 신부님은 종종 알게저리에 있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편지에는 많은 고난과 절망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도리어 새로운 영양제가 된다고 합니다. 한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절망에 눌러 희망의 끈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어김없이 사랑을 주었다.
오래가지는 않지만 사랑은 충분히 맛있었다.

.....
드리워진 낚싯대에 고기는 잡히지 않고
견디고 견디는 지리한 시간만이
한여름의 사막 위를 오아시스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나는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신은 숨겨둔 내 마음속의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신은 가까이 있고
난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모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 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보치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 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다!

아무나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아무나 절망을 멀리 하지 않고 사막을 또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눈길을 느끼는 자들은 이런 시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이웃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이웃 안에 있는 보배를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이야기에서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사순절의 남은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2018.3.18. 주일 설교 중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저는 “여정 (Journey)”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된 건 오로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부터였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Lewis와 절친이었고 그를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만든 J.R.R. Tolkien이 쓴 이 소설은 복유립신화를 바탕으로 한 판타지 소설이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책도 재미있지만 피터 잭슨이 만든 영화는 책에서 묘사된 장면들을 상상외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사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권력, 절대힘을 가진 반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버리기 위해서 마법사, 요정, 난쟁이, 인간 그리고 호빗들로 이루어진 9명의 원정대가 호기롭게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반지를 가지려고 하는 절대악의 방해와 또 그들 안에 있는 악함으로 인해 원정대는 뿔뿔이 흩어지지요. 그들은 서로가 살아있는지, 또 그들의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모른 채 그저 그들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견디고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되고 절대악도 물리치게 되고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도 완성하게 됩니다. 하하하, 아이들 얘기 같지요? 그러나 저에겐 하늘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정을 떠올리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도요.

이들의 여정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험난해집니다. 처음 여행을 떠날 때 주인공들의 말끔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얼마나 처참해지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의 임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되고 과연 이 여정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하는 회의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절망감이 극도에 다다라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그들은 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애쓴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임무를 마치게 되고 여정을 완성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반지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그 여정을 방해해온 골룸이라는 존재조차 쓰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2001년에 이 영화가 처음 나왔으니 벌써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도 이들이 겪었던 것 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또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제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해야하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고 한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허덕이기도 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매번 포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그 때마다 저는 이들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그 여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언젠가 제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있고 늘 동행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정을 한 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보는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상 16:7)

한 곳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하다보니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된다. 나에겐 그 수 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손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부모 허락하에 스티커나 캔디를 주는데 이 재미에 매주 마다 꼭 와서 놀던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안고 인사를 오는 사람, 손님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모든이가 꼽았던 이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어 그동안 잘있었냐고 인사를 하자 오열을 하면서 온몸에 급작스럽게 암이 퍼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 방문이라고 인사하며 29살 꽃다운 나이에 어린 딸 셋을 남겨두고 떠났던 손님.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오는 너무나 작은 말레이시안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어느날 남편이 왔길래 제 아내가 안부를 물으니 그 덩치가 큰 백인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한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위로해 주며 다음날 가게 카운터에 “pray for Noorul Rahman” 이라고 붙여놓고 간단한 사고 내용도 적었다. 손님들 중 동네 목사님들께도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중 몇달 뒤 Noorul이 남편의 손을 잡고 절뚝거리며 나타 났다. 남편이 자기에게 우리가 카운터에 팻말을 붙여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힘이 되었다고 고마워하며 퇴원하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왔단다. 의사가 반드시 죽는 큰 사고였는데 체구가 워낙 작아 차의 앞이 완전히 운전석까지 밀려 들어온 상태에서도 기적같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평생 불구로 살면서도 그저께도 찾아와 아내를 끌어안으며 우리 가족들의 소식을 물으며 남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다.

이런 특별한 많은 손님들 중 나에겐 V.I.P가 있다. 요즈음은 전산화가 되어서 각 손님의 매상액과 그 순위까지 가르쳐 준다. 당연히 상위 손님들이 귀하고 고맙다. 그들로 인해 나의 삶이 지속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며 여러 가게 중 우리 가게에 와 주었음이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연말이면 상위 손님들에겐 또 특별히 친숙한 손님들에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 또한 그들로 부터 많은 선물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정성을 드려 선물을 준비하는 손님이 있는데 그는 매상 순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80대인 그가 처음 우리 가게에 옷을 가지고 왔을 때엔 너무나 남루하고 옷도 더럽고 냄새가 나 다른 사람들 옷과 도저히 섞을 수가 없어 따로 빨고 제발 안 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 어느날 부턴가 “my son! “이라고 부르면서 30살 정도의 사람과 같이 오는데 눈이 옆으로 돌아간 데다가 흉악스럽게 다른 손님들에게 괴성을 질러 데 내가 손님들을 안심시키느라 힘들었다. 늘 같이 오든 그 아들이 언제부터 인가 보이지 않았다. 궁금해서 아들은 어쩌냐고 물으니 자기 아들이 아니라 갈데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데려다 같이 지내다가 이젠 자기도 늙어 더 이상 돌봐 줄 수가 없어 어떤 기관에 데려다 주었다. 순간 난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처지도 힘든데 가족도 버린 장애인을 데리고 돌봐준 그와 그들을 불편해 했던 내 모습이 천사와 탐욕스러운 장사꾼의 모습으로 비교 되어졌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내와 카운터 직원들과 공유하며 우린 그를 최고의 손님으로 정성스럽게 대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줄 그도 느꼈는지 어느 날부터 매주 마다 장미와 꽃다발을 한아름 가지고 온다. 꽃집에서 잠시 도와주고 꽃을 받아온다며 몇 년 동안은 우리 가게를 꽃 향기로 가득 채워 주었다.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 그를 나의 V.I.P로 꼽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나는 나에게 묻는다. 나는 손님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어질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생각하며 이제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예 판단하지 않을려고 한다.

기도: 하나님!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끊임없이 질주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셨을 뿐 아니라 탐욕스러운 내 배에 창이 들어왔어야 하고 교만한 내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야 했는데 내 대신 피 흘려 주셨던 주님. 그 피 때문에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수 있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려움과 자유함

윤만강 권사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도 13:12)

가끔 나는 두려움과 함께 답답하고 조급해진다.

50년이 넘도록 믿고 따르고, 나를 변함없이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세히 깊이 알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생각할 때마다 와...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무궁무진한 말씀을 어떻게 새 가슴처럼 작고 보잘 것 없는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서로 얼마나 알고 진심으로 사랑했나?

5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온 남편도 자세히 모른다.

작은 새 가슴으로 팔딱거리고 떠들고 시끄럽게만 해 주었다.

날마다 떠 오르는 해와 달, 모든 나무와 화초들, 갖가지 우스운 동물들, 땅 위와 아래로 펼쳐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피조물들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감사하며 즐겼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자유하다.

작은 새 가슴이라도 난 주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중에 정말 잘나고, 정말 못난 사람이 없기에 자유하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다.

서로의 주책없는 실수도 이해할 수 있고,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진심이면 되니까.

나는 주변의 작은 꽃도 너무 예쁘다. 시들었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하고 통하는 것 같아 즐겁고 자유하다.

어느 날 작은 새 가슴이 툭 터져 영원 속으로 끌려 올라갈 그때가 있음을 알기에 진정 자유하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던 완전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우리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서 자유하다.

Keith Green의 I can't wait to get to heaven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Jesus Christ has been preparing a home for me and for some of you, for two thousand years, and if the world took six days and that home two thousand years, hay man, this is living in a garbage can compared to what's going on up there.

기도: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고린도 전서 13 장 사랑 장 12 절 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옛날에는 구리 거울)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13-14)

주일 아침 성경공부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약자로 성공반 (성경 공부반)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 한주일을 돌아보고 또한 한주일 한주일이 쌓여서 한 해가 이루어 진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성공반원들의 삶을 통한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나눔을 통해 키가 크듯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최근에 성공반원들을 위한 최정환 집사님의 지압 특강이 있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종종 된 일이 생기듯이 이번에도 같은 시간에 Boston Bruins Hockey 경기 티켓을 이미 구입했으니 함께 가자는 아주 심한 유혹도 있었지만 성공반원들과 함께하는 지압 특강이 우선이라 특강에 참석했다. (PS: 아직까지 Boston Bruins 경기를 직접 관람 못해보았으며 나를 위해 구입했던 티켓은 버려졌다. 그날 나의 응원이 없었어도 Bruins 는 2:1 승리를 거두었다.)

지압 특강이 시작되자마자 준비해온 프린트 패킷을 보고 일단 놀랐다. 칼러 프린트까지 포함된 총 11 페이지짜리 패킷 이였다. 이만큼의 준비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양임을 잘 알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서너 시간에 걸친 지압 강의와 실습을 하며 강의자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성공반원 한명 한명의 눈 빛을 보았더니 모두가 진실되고 수줍고 겸손한 성령의 눈 빛처럼 느껴 졌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정성과 사랑으로 특강을 준비하고 강의하던 특강자의 얼굴과 아주 흡사 하였으리라. 또한 성령님의 눈 빛을 볼 수 있다면 “아아아아” 소리를 내며 열심히 경청하며 실습하던 성공반원 한명 한명의 눈 빛과 흡사 하였으리라. 열정적인 긴 특강을 마치고 허기가 졌는지 식은 피자를 맛있게 먹던 강의자의 모습은 섬김이 무엇인지 느끼기에 충분했다.

매년 사순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등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기이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진실되고 거룩하게 수줍어 하며 진정 누군가를 섬기는 나 자신이 되었으면 한다.

기도: 저희를 보스턴에 있게 하시고 보스턴한인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4/12(금)

알지만 알지 못합니다.

최재원 집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한복음 15:4)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픈 육신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세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돌봐 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눈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생명의 빛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참된 뜻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찬송을 드리는 찬양대,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에게 주
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대학원생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온 친구와 마주했는데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LA지역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데다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유학생에게 있어서 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한 공식 신분증 역할을 하다 보니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많이 우울했었나 봅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그 친구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 오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도 운전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날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자기 나라에서 이미 오랫동안 운전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실기시험을 치르러 갔었는데, 이게 웬걸, 도로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대한 잘못이 뭐였냐고 궁금한 표정으로 묻는 제게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험관이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차를 맨 왼쪽 차선으로 옮기고 신호등 앞에서 있지 않았겠어? 맨 앞에서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커란 불이 켜지더라구.”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나는 쉼썩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했지.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던 시험관이 버럭 화를 내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구. 그리고 나서는 실기시험이 중단됐지 뭐야.” 알고보니 그 친구는 반대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대신, 신호가 바뀌자마자 맞은편에 있는 차들이 출발하기 전에 재빨리 좌회전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니 깜짝 놀란 시험관이 실기시험을 곧바로 중단시켰던 것 이구요. 저는 너무나 의아해서 그 친구에게 왜 그렇게 급하게 좌회전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좌회전을 한다구. 그렇지 않으면 차도 많고 사람들이 양보를 안해주어서 좌회전하기 힘들거든.” 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학 초기이다 보니 그 친구는 몸은 미국에 와 있어도 사는 방식은 원래 자기 나라에서 하던 그대로였던 것이지요. 듣고 보니 조금은 우스웠던(?) 친구의 실수담을 통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생각이나 습관을 보면 영락없이 자기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었던 그 친구를 보면서, 천국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곳에 분향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영락없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지 참 부끄러웠습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법칙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가슴속 품어 둔 소망의 이유를 살포시 꺼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주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이영길 목사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라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28-30)

여인은 돌이 쥐어져 있지 않은 주님의 손을 봅니다. 그 손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아
니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손이 주위에 널려져 있는 돌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두
려움 가운데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이
제는 주님이 죄인이 됩니다. 주님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구요? 주님께서 율법
을 어기셨습니다. 레위기 20: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군중으로 하여금 돌을 놓
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었으니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죄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
니 주님께서 돌로 쳐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내 율법을 위반합니다. 율법을 이루
기 위해서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서는 돌을 드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율법을 대신 어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멧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하나로 인해 멧가를
치루게 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여인의 죄의 멧가만을 치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의 죄의 멧가도 치루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멧가를
치루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므로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동안 그리셨던 그림들이 글들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리셨더라도 이 말씀이 없으셨더라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그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기에 여인과 바리새인과 우리 모두는 새로와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간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리신 그림은 결코 모래 위에 그림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리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이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예루살렘성에 나귀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군중들은 잠시 후 마음은 바뀌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끝내 제자들에게 버림 당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며 빌라도와 로마군병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한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전에 땅에다가 멋지게 쓰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에다 멋지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땅에 남기셨던 주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하늘에 남기시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이 작품을 남기신 이유는 땅에서 하늘의 높은 꿈을 안고 살았어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도리어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 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시다. 말이 더 잘 뛰는 말이 되게 하는게 아니라 날개가 달린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시다. 이 놀라운 축복은 여인이 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서 시작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이번 고난주간을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바리새인이든 그 누구든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 속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2018.3.25. 주일 설교 중에서>



사순절의 기도

장봉준 집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로마서 8:1-2)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가장 낮은 곳에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한없는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호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홀로 영광을 돌려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금욕 등의 절제를 통해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탄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이 갖는 의미를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적인 작은 승리에 취해 교만 해져서 세상에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유혹을 받을진대 세상을 지으신 주께서 영광 가운데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은 얼마나 누르기 어려웠을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견뎌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인 저를 이해하기 위해 친히 육신을 가지고 온전히 겸손과 온유와 절제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를 더듬거리며 고백합니다.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던 사순절도 어느덧 막바지인 고난 주간으로 향해 치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독한 영적 고통과 번뇌로 인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 6:37-)” 라고 고백하시며 피가 땀구멍에서 흐르도록 피로와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쩌나 큰지 피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고뇌를 토하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고백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내 동이 뜨기 전 스스로 무리에게 결박당하시고 정죄 당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20냥에 눈이 멀어 주님을 배반할 것을 무리에게 약속하고 시시각각 때를 엿보기만 했습니다. 나는 유다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나의 삶속에서 돈과 재물로 인해 구차한 변명으로 주를 배반하고 온통 기회를 엿보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군중속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 언덕을 오르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님의 모습을 견딜 수 없는 죄에 놀려 뭉부림치는 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군중 가운데, 애써 고개 돌려 외면했던 한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주님의 발치 아래서 주를 조롱하고 침을 뱉던 이가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없는 저를 대신하여 주님은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조차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이다(눅 23:34-)” 라고 당신을 저버리고 조롱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기도해 주신 주님. 고통의 끝 자락에서 “다 이루었다 -요 19:30-” 고백하십시오. 대속의 긴 여정을 마감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양이 되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두꺼운 성전의 휘막이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지르는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죄를 도말하사,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새로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염치없게도 뺨을 호르는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이제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인자의 육체가 아니라 죄에 종 노릇 하던 나이며, 인자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지탱하게 한 것은 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도: 삼일 만에 부활하사 호세아 (6:2)와 요나 (1:17)를 통해 말씀하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 그 첫 부활의 기쁨, 그리고 우리와 나누시길 원하는 새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내가 주안에 주가 내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정 용서의 사람인가?

이덕재 선교사
(뉴멕시코 나바호 지역)

4/16(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마태복음 18: 21-35)

용서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용서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1.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용서에 관하여 예수께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의 범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고 물은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마 18: 22)였습니다.

2.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유를 드셨습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모두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로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용서는 긴 과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용서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용서의 감정과 느낌이 저절로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하기로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다시 아픈 상처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몸의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4.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 일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 탕감 받았기에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의 기나 긴 용서의 길을 가는 동안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가족과 지체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It's Lord's Day

강상철 장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16)

What I am reflecting here is not a revelation but a reminder of what I and many Christians know. I hope and pray that my little reflection helps reader's Christian journey.

During 1970's I attended an American church in Natick. Usually our church had a small number of people on Sundays, but for two Sundays, the church was full of people. We called many of the people coming only these Sundays, "C & E Christians" It means Christmas & Easter Christians. Actually, we collected significant portion of yearly offerings in these two Sundays. I could see significant decline of American church attendance during that time. Today I don't think we even have C & E Christians anymore.

I don't know when, but at some point of my Christian journey many years ago, Christmas or Easter became less important to me because I feel that every Sunday we come to worship together, we celebrate His coming, death & resurrection. So why are these two Sundays different from other 50 Sundays a year? I guess this takes away special feelings for these special Sundays, but that's how I feel.

Since Holy Spirit touched me almost 47 years ago, I have had up and down life of faith as most believers in Christ. During some periods in my life, I had a lot of fire and thirst for Christ, but I also had during many periods in my life, I was lukewarm and dry in my faith.

However, amazingly in one area, I have been very consistent in my Christian journey, attending Sunday worship service. Sunday worship is so special and important to me. They help me to sustain next 6 days. God is everywhere and we can worship anywhere and anytime but I guess worshipping with believers in Christ and share our faith journey together is irreplaceable.

Prayer: : I thank God that He has shown me so much grace in my life, and I also thank God for the people of KCB making this place a special community of faith. Amen.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스톤에 1년 동안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보스톤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감사하게 말씀과 찬양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편안해진 삶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가고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드러나면서 기쁨보다, 감사함 보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통독과 가정예배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 진심이 없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홀려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이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하심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어져도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잘못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안에 기도가 없었음을, 회개가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나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려고 했고, 그 말씀으로 내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를 만져 주시고, 주님이 더 깊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만족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와 기쁨임을 알게 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의 더러운 죄에서 나를 건져 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것이 복된 삶이길 기도합니다.

사순절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기간 새롭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기도: 우리의 많은 죄들로 수많은 찔림에 고통과 목숨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은혜임을 감사하며 사나 죽으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참된 자녀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하고 불러 놓고 아무 말도 못하였네

남상근 라파엘 신부

어느 날
성체 등만 지키고 있는 감실 앞에 앉아
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께 말씀드리려고
“주님!” 하고 불렀다가 제대 위 바라보니
주님 지고 가신 무거운 십자가 생각나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네

너도 나처럼 지쳤구나
너도 나처럼 힘들구나
말없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내 마음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였네

어느 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아픈 탓에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내 위로 받고 싶어서 주님께 말씀드리려고
“주님!” 하고 불렀다가
피땀으로 기도하신 겐세마니의 주님이 생각나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네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너도 나처럼 위로받고 싶구나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당신 눈길이 내게 다가와
아무 말도 못하였네

매일 매일 다가오는
내 십자가 너무 무겁디무거워
견디기 힘들다고 투정하려고 고개 숙이고 한숨 쉬면서
주님께 말씀드리려고
“주님!” 하고 불렀다가

세 번이나 쓰러지시며 골고다 오르신 주님 생각나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네
너도 나처럼 무겁구나
너도 나처럼 쓰러졌구나

오허려 내게 위로해 달라시던 당신 음성이 들려와서
아무 말도 못하였네

가족들도 친구들도 나를 이해 못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한 날

주님은 아시겠지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려고
“주님!” 하고 불렀다가

고향에서도 모욕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신
나의 주님 생각나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네

나도 너하고 똑같았단다
나도 너처럼 이해받지 못했단다

주님께서도 속상하셨다가에
주님께서도 버려지셨다가에
아무 말도 못하였네

기도조차 할 수 없던 어느 날에도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리시며 기도하신
당신을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하겠고
사랑이 다 식어 버린 차가운 날에도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말씀이 떠올라
아무 말도 못하겠고

찢찢매며 지낸 하루였어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남김 없이 내어주신 당신 몸과 피가 어른거려
아무 말도 못하는 나는 ...

주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게 하시는 탓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고난에 차마 비길 수 없어
차마 힘들다 말할 수 없어

“주님!” 하고 불러놓고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네



세 손녀들 이야기

윤원길 장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하느니라” (잠언1:7)

내가 retire 한지도 벌써 10년이나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매일이 주말 같아서 좋았다. 좋아하는 책도 읽고, 전엔 못 다녔던 여행도 하였다.

지금은 Retire 한 몸이라 꼼짝없이 Boston 딸에게 붙들려 손녀 딸들 8, 6, 3 살짜리를 돌보며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좋아서 제일 좋다.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좋아서 편안하다. 또 들으니 장로님들 중에 손자 손녀들 때문에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고 어떤 장로님은 할머니께서 아주 열심히 신앙교육을 잘 시키셨다고 해서 참 귀한일을 하셨구나 느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내는 부엌에서 일하는 cook이요 나는 assistant cook인 셈이다. 운동삼아 여기저기 청소도 열심히 해주고, 가까이 산책도 한다. 그 외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데리러 갈 때면 멀리서도 “할아버지” 하고 뛰쳐나오는 3살된 셋째 아이가 참 귀엽다.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다. 교회에서 3세대가 같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고 표어에도 나왔다.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창세기에 신앙 족보가 나와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 나아갈까 연구 해야겠다.

이 집 3손녀를 비롯해 우리는 모두 8명의 손자, 손녀를 두었다.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구절을 외우면 상금을 얼마큼 주었다. 몇 개월 후에 다 모일 기회가 되면 성경퀴즈 대회도 하였다. 금년에는 어른들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곳 3아이들 중 두아이는, 성경 요절을 큰 종이에 써서 부엌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읽게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암기한다. 주기도문은 다 암송했고 시편23편도 써 놓았다. 다같이 식사하는 때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합창을 하고 먹기 시작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감사드리며 우리도 저들을 위해 기도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실천 해야겠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1-3)

옛날에 어느 부유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은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것처럼 멀고 험한 길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왕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발이 아프다고 내내 불평을 하다가 급기야 온 거리에 가죽을 깔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양의 소가죽을 써야 했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 한 신하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왜 그토록 많은 돈을 불필요하게 쓰려 하십니까? 소가죽으로 전하의 발을 감싸면 되지 않사옵니까?” 왕은 속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매우 놀랐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즉시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죽신발을 만들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앞 길이 늘 평탄하게 되길 원합니다. 평탄해 보이지 않으니 늘 근심 걱정입니다. 어떻게 우리 앞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길도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레를 하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희망을 갖고 어떤 주어진 길도 춤추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희망의 신발을 신고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더해질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신발을 신고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 갔습니다. 곧 그는 인생 길에서 늘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새벽 빛과 어김없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를 체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외칩니다. 자기처럼 춤추며 살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한 마디로 3일의 신학을 살아가는 것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자들이 부활절 설교를 기피하기 원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는 것인데 선포만 하려고 하니...,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매년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설교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선포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기를 힘쓴다는 것은 바로 오늘 부활을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3일의 신학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희망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3일의 신학이 여기서 끝난다면 저는 온전히 호세아의 3일의 신학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어가 개인이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호세아의 위대함은 개인의 부활의 삶에서 공동체의 부활의 삶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매어 있지 않았습디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아픔에 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벽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울러 인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공동체를 위한 3일을 내다 보는 자들이 진정 든든한 희망의 신발을 신고 걷는 자들입니다. 춤추는 자들입니다.

춤 혼자 추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가 많을 수록 좋지 않을까요? 함께 희망의 춤을 추십시오.
보스톤 한인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18.4.1. 부활주일 설교 중에서>





